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의 효과성 연구: 감성지능과 공감능력

임애련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

A Study on Effectiveness of Online Interactive Cinematherapy Course Due to COVID-19: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

Ae-Ryon Lim

Department of Arts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Welfare, Shin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게 된 대학의 강의 환경에서 토론을 전제로 개발된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이 비대면 환경에서도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COVID-19 전후,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각각 경험한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의 수강생으로, 대면수업 수강생 212명, 비대면수업 수강생 139명으로 구성되었다. 대면수업 수강생은 연구자와 수강생 간의 구조적 질문과 수강생 간의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비대면수업 수강생은 토론을 대체하기 위해 연구자와 수강생 간의 이메일을 활용한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비대면수업으로 진행한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은 감성지능 중 타인감성이해와 감성활용 능력이 증가하였고, 공감능력 중 인지적 공감과 두 하위요인인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모두 향상되었으며, 정서적 공감 중에서는 공감적 관심이 향상되었다. 대면수업의 효과와 비교한 결과, 타인감성이해, 인지적 공감,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이 공통적으로 향상되었고, 대면수업에서는 자기감성이해가, 비대면수업에서는 감성활용능력이 각각 향상되어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의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한 질적연구에서는 교수자의 소통능력과 관심이 비대면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될 수업 환경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보다는 교수자와 학생 간의 소통과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whether the Interactive Cinematherapy Course developed based on discussion is still effective for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 even in a college lecture environment where courses are given online due to COVID-19. The subjects were enrolled in the Interactive Cinematherapy Course and experienced either an online (N=139) or offline (N=212) course before and after COVID-19. To the offline course, students were given structural questions and conducted discussions, whereas the online course students were given feedback via e-mail to substitute discu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Compared to the offline courses, students in both online/offline courses commonly showed an increase in "Other's emotion appraisal", "Cognitive Empathy", "Perspective taking", "Fantasy", and "Emphatic Concern". The online course students showed an increase in the "Use of emotion", while offline course students showed an increase in "Self emotion appraisal". This shows that online and offline courses do not hav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ffects. In qualitative research, the lecturer's communication ability and concern helpe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active Cinematherapy Course given online. This implies that communication between the lecturer and students and role of the lecturer are more important than the online environment.

Keywords : Interactive Cinematherapy Course, Online, Emotional Intelligence, Empathic Ability, Communication

*Corresponding Author : Ae-Ryon Lim(Shinhan University)

email: mfelim@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18, 2020

Revised December 1, 2020

Accepted February 5,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1. 서론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2020년 9월 현재에 이른 상황에서 전 세계적 팬데믹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환경을 조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국내외 대부분 대학에서도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온라인 강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1].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비대면 수업은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COVID-19로 인하여 단시간에 대면 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생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 비대면 교양영어 수업의 학습자들에게는 영상 끊김 등의 기술적인 문제, 학습 콘텐츠, 출석 대체 과제 부담, 학생의 의지 박약 등의 문제가 온라인 수강의 주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2]. 교수자는 원격강의를 위한 교수학습전략의 적용과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학생은 온라인 환경과 집중도 및 몰입 저해라는 문제가 발생하여,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3].

본 연구자가 소속한 대학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수자가 미리 PPT로 진행되는 수업 내용을 교수자의 강의 목소리와 함께 녹화하여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업로드하고,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받는 형식의 비실시간 방식을 선택하였다. 2020년 1학기에는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고, 서울대와 이화여대[4][5]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면서 교수자에게 비대면 수업의 운영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공적인 학습 결과를 얻기 위해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6]. 선행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의 설계와 관련하여 강의의 내용과 교재의 구조화, 교수자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7][8][9][10]. 따라서 비대면 수업의 설계 시 강의 내용과 자료의 질뿐만 아니라 학생의 비대면 학습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의 수준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강의 내용과 교재의 구조화보다는 상호작용 수준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제기되었다[11][12][13][14].

비대면 수업의 유형에 따른 만족도를 연구한 이영희, 박윤정, 윤정현[6]은 학생들은 '실시간 화상 강의형' 수업을 가장 만족하였는데, 이는 국내외 대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의 형식 중 자기 주도적 학습방식보다는 즉각적 피드백과 교수자와의 직접적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강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업

방식은 교수자가 제작한 영상을 시청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장대익[14]은 "팬데믹 교육"의 핵심 가치를 빠른 적응력, 창의성 그리고 공감과 협력으로 꼽고 있다. 이보경[15]이 조사한 주차별 온라인 수강 시 어려움에 대한 항목에서도 기술적인 문제 혹은 학생 스스로의 의지박약 문제 외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가 소통의 어려움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육의 형태와 상관없이 공감하기 위한 소통은 교육의 필수 조건이라 볼 수 있겠다.

공감을 이루기 위한 소통, 즉 상호작용은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중시된다. Rogers[16]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경험과 내적인 차원을 이해하고 이를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전달과 소통, 커뮤니케이션 차원이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심리치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 영화에 내재된 치유적 힘이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심리치료는 자기조력적, 표현적, 상호작용적으로 구분되며,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는 감상을 통한 치료로 보고 있다[17]. 여기서의 핵심은 상담자와 내담자, 내담자와 내담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영화를 내담자의 삶과 통합하는 것이다. 영화심리치료기법에 대한 이론에 의하면, 영화심리치료는 동일시와 거리두기(탈동일시)의 두 기법으로 구분된다. 영화심리치료에서 동일시란 자신을 영화 속 인물처럼 느끼는 것으로서, 등장인물의 목적이나 가치를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여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과정이다. 탈동일시란 어떤 정신적 대상을 공간적으로 분별력 있게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행위와 그렇게 인식되는 어떤 것으로, 감상자의 세계관, 역사관, 인격에 따라 무엇을 투사하는가가 달라지는데, 다양한 금지된 생각과 충동을 자신이 아닌 타인의 탓이라 여기면서 불안을 막는 기제로 보고 있다[18].

관람자가 영화를 보고 있다는 자각은 동일시와 탈동일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영화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객관화하고 자신을 발견하도록 한다. 영화의 등장인물에게 호감 혹은 비호감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에게 내재된 장단점을 인식하고 특성을 수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행동, 영화 속의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즉, 영화심리치료기법의 강점은 공감과 통찰,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감성지능이란 감정을 다루는 능력으로, Salovey & Mayer[19]가 용어를 제시하였다. 이는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활용, 감성조절로 구성된다. 자기감성이해와 타인감성이해는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는 수준이고, 감성활용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감성에 관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감성조절은 긍정 혹은 부정적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감성지능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감성지능은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또한 개인의 맞춤형 가치가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감정을 무시할 수 없으며,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여 업무에 활용하면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20].

공감능력은 Rogers[16]가 강조하였으며,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연구자에 따라 중요도를 달리 보고 있지만, 대체로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이 다른 차원이라는 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인지적 요인은 타인의 관점 수용과 마음 이해·추측 능력에 중점을 두는 데 비해, 정서적 요인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감능력은 미래의 인재가 보유해야 할 핵심 경쟁력으로 강조되고 있으며[21], 서비스업 종사자뿐 아니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22].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은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학습·향상될 수 있으며, 집단 벽화 그리기,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독서치료 등에서 효과가 검증되었다[23][24][25][26][27]. 특히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에서는 타인과의 공감과 타인에 의한 내면의 재발견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는 자신의 문제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등장인물을 통하여 객관적인 관점을 취할 수 있으며, 지적 만족보다는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감정을 정화하고 인생을 통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28].

영화치료방식은 자기정서이해, 타인정서이해, 정서표현 등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30], 영화 감상을 통해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공감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31]. 교수자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토론과 질의를 전제하여 개발된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은 대면 상황에서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27]. 하지만 이후 COVID-19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을 진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토론과 질의라는 상호작용을 교수자가 제시하는 구조적 질문에 의한 감성문과 레포트, 이에 대한 실시간 일대일 피드백으로 대체하였을 때, 과거의 대면수업과 비교하여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에 대한 비열등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1. 비대면으로 진행된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은 대학생의 감성지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 연구문제2. 비대면으로 진행된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은 대학생의 공감능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 연구문제3.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을 때, 대면수업에 비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COVID-19 이전 대면 수업으로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을 수강한 212명의 학생과 COVID-19 이후 비대면수업으로 동일 과목을 수강한 139명의 학생 각각에게 동의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는 수집된 자료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으며, 설문조사 후 개별적으로 연구에 대한 보상이 주어졌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비대면 수업을 수강한 학생의 성별은 여성 86명(61.9%), 남성 53명(38.1%)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 37명(26.6%), 2학년 37명(26.6%), 3학년 34명(24.5%), 4학년 31명(22.3%)으로 나타났고, 전공은 사회과학대학 53명(38.1%), 바이오생태보건대학 35명(25.2%), 글로벌 비즈니스대학 29명(20.9%), 과학기술융합대학 13명(9.4%), 디자인예술대학 9명(6.5%) 순으로 나타났다.

COVID-19 이전 대면수업을 진행한 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132명(62.3%), 남자가 80명(37.7%)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이 64명(30.2%), 2학년이 53명(25.0%), 3학년이 52명(24.5%), 4학년이 43명(20.3%)으로 나타났고, 전공은 바이오생태보건대학 87명(41.0%), 사회과학대학 41명(19.3%), 글로벌비즈니스대학 40명(18.9%), 과학기술융

합대학 23명(10.8%), 디자인 예술대학 21명(9.9%) 순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2.2.1 감성지능

Wong & Law[29]가 개발하고 전유정과 이수범[32]이 변안한 WLEIS(The Wong and Law EI Scale)를 감성지능의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감성지능의 하위요인은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척도는 Likert 7점 척도로 설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자기감성이해 0.658, 타인감성이해 0.754, 감성조절 0.732, 감성활용 0.760으로 모든 요인이 0.658 이상의 값을 보여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2.2 공감능력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33]가 개발하고 박성희[34]가 변안한 IRI(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척도를 사용하였다.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은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는 인지적 공감으로,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은 정서적 공감으로 통합할 수 있다. 공감능력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관점 취하기 0.673, 상상하기 0.757, 공감적 관심 0.730, 개인적 고통 0.785로 모든 요인이 0.673 이상의 값을 보여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2.3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

본 연구에서 효과를 검증할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은 본래 대면수업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대면수업에서는 Table 1에 제시된 것처럼 수업 시간 중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35]가 제안한 주제에 맞는 영화를 상영하고, 팀별로 영화의 내용에 대하여 구조화된 질문과 비구조화된 질문을 제시하여 토론하였으나, COVID-19에 따른 제약으로 인하여 온라인 비대면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학생들 간의 토론 과정을 감상문과 레포트 형식으로 대체하였다. 연구 기간은 1학기 15주 중 12주 동안이었으며, 총 8편의 영화를 감상하고 연구자가 제시한 질문에 대한 레포트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수업에 사용한 영화는 한국영상영화치료학

회에서 주제별로 추천하는 영화 목록[35] 중, 연구자의 교육 목적에 따라 의식적 자각으로 영화보기, 다양한 관점 및 부정적 자기 지각 극복하기, 나의 트라우마 찾기, 내면아이 치유하기, 내면아이 위로하고 성장시키기, 부정적 신념 찾고 극복하기, 필름매트릭스와 셀프 매트릭스를 통한 나의 장단점 파악하고 수용하기 등의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주제에 따라 기생충, 윈더, 월 플라워,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여행자, 와일드, 아이 필 프리티, 로 맨틱 홀리데이 등을 관람하였다.

수업은 당일 감상할 영화의 주제에 맞는 이론적 수업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슬라이드에 녹음된 강의를 재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 후, 주제와 관련된 영화 한 편을 정해진 기간 내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관람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은 영화를 관람한 후, 1주일간 연구자가 제시한

Table 1. Movies used in Interactive Cinematherapy Course

Theme	Purpose	Movie	Description
Watching a movie with conscious awareness	Find out the hurt through the movie	Parasite	Watching a movie from a healing perspective
Different perspectives and overcoming negative self-perception	View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rom a relative perspective	Wonder	Thinking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s
Find my trauma	Use identification mechanisms to discover my trauma	Wall flower	Remember past trauma associated with your problem and discover the cause of the problem
Healing the inner child	View negative relationships from past distorted relationships	Attila Marcel	Considering the life what you really want through the healing process
Comforting and growing your inner child	Comforting and growing the hurt inner child	A Brand New Life / Wild	Understanding and empathizing with conflict
Insight into the causes of anger and transforming them into positive resources	Finding and Overcoming Negative Convictions Accepting me now-here	I Feel Pretty	Overcoming problems by finding various self-images and identifying negative beliefs
Film Matrix and Self Matrix	Using identification and projection techniques	Romantic holiday	Analyzing my strengths and weaknesses

구조적 질문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뒤, 이메일로 레포트를 제출하였다. 레포트를 제출한 해당 주차에 교수자와 연구대상자 간에는 즉각적인 피드백과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론 과정을 대체하였다.

연구자가 제시한 구조적 질문으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과 싫어하는 인물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도록 하였고, 자신이 선정한 인물과 다른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고찰하며 그런 관계가 형성된 이유, 영화에서 자신이 선정한 등장인물이 문제를 대하는 인식과 해결 방법, 자신이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영화 속에서 자신과 관계된 부분, 기억나는 사건이나 상황, 나의 가치관과 신념 등이 있었다.

2019년 2학기에 실시한 대면수업에서는 12주 동안 7편의 동일한 영화를 감상하고 연구자가 제시한 15개 이내의 구조적 질문과 학생들 간의 비구조적 질문으로 응답 및 토론을 실시하였다. 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이 제시한 비구조적 질문으로는 특정 장면에 대해 다른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은 해당 영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장인물 간의 관계가 설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이 있었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으며, COVID-19 이전 대면수업의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에 대한 효과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COVID-19로 인한 비대면수업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피드백을 수집하여 결과를 보충하였다. 매 차시 수업 후, 영화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수업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이메일을 통해 감상문과 레포트 형식으로 수집된 피드백은 전문적인 예술심리치료 경험이 있는 상담사에게 온라인으로 의뢰하여 내용을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에 따라 유목화하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피드백 분석 결과는 양적연구 분석 결과를 보충하는 것으로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비대면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COVID-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된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이 학생들의 감성지능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타인감성이해($t=-3.301, p<.01$), 감성활용($t=-3.067,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비대면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은 학생들의 감성지능에서 타인감성이해와 감성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Difference in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cinemapsychotherapy

Variables	Pre-test	Post-test	t-value
Self emotion appraisal	3.78±0.57	3.93±0.62	-1.977
Other's emotion appraisal	3.88±0.56	4.10±0.59	-3.301**
Regulation of emotion	3.52±0.81	3.49±0.75	0.243
Use of emotion	3.31±0.69	3.58±0.76	-3.067**

** $p<.01$

비대면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학생들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경험적으로 막연하게만 느끼던 대인관계를 보다 이론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자신의 성장과 관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살면서 겪어본 관계들을 토대로 대충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던 내용을 이론으로 자세하게 배우니 인간관계뿐 아니라 나에 대해 생각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나라는 사람을 자세히 알고 내가 더 성장하고 전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 강의는 앞으로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비대면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을 통하여 감성활용능력, 특히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나거나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나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던 기억이나 상처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수업내용과 접목시키며 생각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수업을 통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나 자신에게 조금은 더 너그러워져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3.2 비대면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COVID-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된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이 학생들의 공감능력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인지적 공감($t=-4.087, p<.001$), 관점 취하기($t=-2.346, p<.05$), 상상하기($t=-3.966, p<.001$), 공감적 관심($t=-2.556,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비대면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은 학생들의 공감능력 중 인지적 공감과 두 하위요인인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모두 향상되었으며, 정서적 공감 중에서는 공감적 관심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3. Difference in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cinemapsychotherapy

Variables	Pre-test	Post-test	t-value
Cognitive empathy	3.71±0.47	3.93±0.45	-4.087***
Perspective taking	3.73±0.51	3.88±0.53	-2.346*
Fantasy	3.68±0.62	3.97±0.59	-3.966***
Affective empathy	3.53±0.53	3.43±0.45	1.643
Empathic concern	3.54±0.52	3.72±0.61	-2.556*
Personal distress	3.32±0.58	3.33±0.69	-0.188

* $p<.05$, *** $p<.001$

관점취하기의 사례로 영화 속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자신의 환경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어머니가 오빠를 더 좋아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욕구에 대한 표현이 명확하여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오빠는 표현이 약하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오빠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영화와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하여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과 오빠를 차별 없이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어요.”

상상하기의 경우 관련한 영화의 등장인물을 초대하여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에 대하여 영화 ‘여행자’의 주인공 진희를 초대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응답자는 진희가 낯선 환경에서 어색해하며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응원의 말을 건네고 싶어 하였다. 진희를 선택한 이유는 자신도 학년이 바뀌면서 새로운 친

구들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 스트레스로 여겨졌는데, 진희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동질감이 들었다고 응답하였다.

‘아이 필 프리티’ 영화를 감상한 뒤, 한 학생은 주인공에 자신을 대입하였다는 레포트를 제출하였다. 이 학생은 “르네의 경우에 영화 안에서 자신의 외형적인 부분에 부족함이 있고 남들의 외모와 자신의 외모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숨는다. 하지만 나는 나의 외형적인 부분보다 나의 내면적인 부분이 남들과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들을 숨기려고 한다.”며 주인공의 행동에 빗대어 자신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성찰하였다. 결과적으로 주인공의 외모는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함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감상을 자신에게도 대입하였다.

3.3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의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

COVID-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된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이 COVID-19 이전의 대면수업과 비

Table 4. Difference in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cinemapsychotherapy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t-value
Self emotion appraisal	face-to-face	3.82±0.60	3.99±0.59	-2.008*
	Untact	3.78±0.57	3.93±0.62	-1.977
Other's emotion appraisal	Face-to-face	3.89±0.58	4.13±0.69	-2.831**
	Untact	3.88±0.56	4.10±0.59	-3.301**
Regulation of emotion	Face-to-face	3.56±0.87	3.64±0.88	-0.652
	Untact	3.52±0.81	3.49±0.75	0.243
Use of emotion	Face-to-face	3.34±0.82	3.33±0.84	0.101
	Untact	3.31±0.69	3.58±0.76	-3.067**
Cognitive empathy	Face-to-face	3.79±0.49	3.94±0.52	-2.677**
	Untact	3.71±0.47	3.93±0.45	-4.087***
Perspective taking	Face-to-face	3.80±0.56	3.94±0.56	-2.237*
	Untact	3.73±0.51	3.88±0.53	-2.346*
Fantasy	Face-to-face	3.78±0.66	3.94±0.68	-2.039*
	Untact	3.68±0.62	3.97±0.59	-3.966***
Affective empathy	Face-to-face	3.41±0.45	3.51±0.52	-1.694
	Untact	3.53±0.53	3.43±0.45	1.643
Empathic concern	Face-to-face	3.53±0.55	3.73±0.63	-2.876**
	Untact	3.54±0.52	3.72±0.61	-2.556*
Personal distress	Face-to-face	3.29±0.58	3.30±0.71	-0.018
	Untact	3.32±0.58	3.33±0.69	-0.188

* $p<.05$, ** $p<.01$, *** $p<.001$

교했을 때, 학생들의 공감능력과 감성지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업 방식에 따른 대응표본 t검정 결과를 비교한 결과, 대면수업 방식에서는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인지적 공감,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에 효과가 있었고, 비대면수업 방식에서는 타인감성이해, 감성활용, 인지적 공감,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에 효과가 있었다. 즉, COVID-19로 인한 비대면수업 방식은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에 대해 대면수업 방식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대면수업 방식과 비대면수업 방식의 차이는 감성지능 중 자기감성이해와 감성활용에서 나타났다. 자기감성이해 능력은 대면수업에서만 향상되었으며, 감성활용 능력은 비대면수업에서만 향상되었다.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은 참여자 간의 소통을 전제로 커리큘럼이 계획되었다. COVID-19로 인하여 비대면수업을 실시하면서 또래 집단 간 소통에 제약이 받게 되었으나, 이를 교수-학생 간 소통으로 대체하면서 대면수업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해석되는데 이는 교수자와의 공감과 소통에 의한 작용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학기 후 학생들의 피드백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수업 내용 중 교수님과 소통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인상적이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저 출석 확인용 답장이 아닌 내가 쓴 내용을 읽어 보시고 피드백해주는 것 같아 존중받는 기분이 들었어.”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좋았던 것은 교수님과 소통이었다.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어 교수님과 소통이나 수업 이해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았는데, 오히려 나에게서는 스스럼없이 교수님께 질문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빠듯한 교양수업 중에 유일하게 소통해주셔서 처음 하는 사이버강의인데도 부담을 적게 느꼈습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비대면으로 진행된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이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면수업으로 실시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와 영향요인을 양적·질적 연구를 통하여 검증,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1학기 동안 비대면수업을 진행한

실험군과 2019년 2학기에 대면수업을 진행한 대조군을 비교하여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의 변화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으로 진행된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은 대면수업을 상정하여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에서는 타인감성이해와 감성활용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공감능력에서는 인지적 공감,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이 향상되었다. 대면수업의 효과와 비교하였을 때, 타인감성이해, 인지적 공감,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은 공통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각 방식에서 독립적으로 향상된 요인은 대면수업의 경우 자기감성이해가, 비대면수업의 경우 감성활용으로 나타났다. 즉,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은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이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에 있어서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비대면 수업에서 자기감성이해가 향상되지 않은 이유는 또래집단 간 토론 과정의 부재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는 자신과 주변 사람을 돌아보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27][37]. 영화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는 일시적으로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데, 참여자와 등장인물이 가진 문제가 유사할수록 참여자의 정서는 증가하고 방어수준은 감소하여 참여한 또래집단 간의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이러한 동일시를 통해 참여자들은 용기와 희망을 얻기도 하고, 등장인물의 문제해결 방식을 자기에게 적용할 수도 있다. 동시에 등장인물의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스크린 밖에서 객관적으로 관찰·분석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삶을 고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18]. 참여자들이 영화 속 상황과 분리된 안전한 곳에서 영화를 감상하면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방어기제는 해체되고 자신에게 발생하는 신체적 반응이나 감정변화를 감지하게 되면서 자신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참여자는 자신의 입장을 동일시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며, 타인의 감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보다 객관화하여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방향 강의 형식으로 진행된 교수자의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또래집단 간 토론이 제외되면서 자기감성이해 능력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비대면수업이라고 할 지라도 소그룹 토론이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기감성이해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감성활용은 비대면 수업에서만 향상되었다. 이는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교수자가 의도적으로 공

정적인 관점을 부각시킴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감성활용은 부정적인 신념을 극복하여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무의식 상태에서 현실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믿기로 결정한다. 본 것을 믿기로 한 이와 같은 결정은 현실을 깨닫기보다는 만드는 것에 더 큰 역할을 한다. 우리가 무의식에 부여하는 특정 의미는 어렸을 때 형성한 개념, 대상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그리하여 우리가 대상과 사람에 대해 가지는 믿음은 '합의된 현실'로 생각된다. 그 결과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은 대부분 편집되고 여과된 변형일 수 있다. 무의식적 신념 가운데 잘못된 신념은 우리가 보는 것을 제한하게 되어 부정적 신념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신념은 스스로의 성장과 건강,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된다. 부정적 신념은 부정적 자기 충족적 예언의 속성을 가지며 무의식에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 신념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시 부정적 신념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38].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과제로 제출한 감상에 대해 교수자는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였는데, 긍정적인 암시로 인해 자신의 부정적 신념이 긍정적 신념으로 변화하여 동기부여 등의 감성활용에 관련된 요인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수자의 긍정적이고 활발한 피드백은 교육 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요인으로 [6][7][8][9][10][11][12][13][14], 교수자와 학생 간의 소통이 어려운 비대면 환경이라 할지라도 교수자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소통 방법을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하여 대면과 비대면의 수업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난 원인을 탐색한 결과,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에 있어서 수업방식보다는 학생들에 대한 교수의 관심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은 대면수업과 상호 토론 및 질의를 전제로 개발되었다. 집단 형태의 영화치료는 동일한 영화를 감상한 개인 간에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고 자신만이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39][40], 비대면수업으로 인하여 또래 집단 간 토론에 제약은 받는 상황 속에서도 교수자와 학생 간에 생각과 의견이 공유되고 즉각적인 피드백과 상담이 제공되어 학생과 교수자 간의 라포가 형성, 증가되어 [41] 학생의 감성지능과 공감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영화심리치료 수업은 기존의 대면수업이나 비대면 수업 두 과정 모두에서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고, 수업 방식에 따른 효과성의 차이는 자기감성이해와 감성활용에서만 나타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대면수업을 가정한 교수학습 방식은 변화를 강요받게 되었다. 기존의 대면수업에서는 쉽게 할 수 있었던 토론, 팀별 활동 및 발표 등의 학습 활동을 비대면 온라인 학습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교수자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6].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러닝캠퍼스 시스템이 교수자의 학습 의도를 온전히 드러내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의 수준과 질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피드백 내용은 교수자의 관심과 배려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즉각적인 소통, 긍정적 피드백에서 특히 좋은 평가가 있었다.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남겼다.

“비대면 환경에서 영화에 대한 감정을 토로하다보니 자신의 감정을 서술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기 쉬웠으며, 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교수님과 대화의 위로를 주었다.”

영화의 장르에 따라 학생들이 기대하는 감정은 실제 관람 후 느끼는 감정과 다를 수 있다. 영화 장르에 따라 추구하는 감정이 다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화들은 드라마에 해당하는 장르로서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기 쉽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장르마다 의도된 정서만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골고루 유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2], 이는 상호작용적 영화치료수업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이끌어 내도록 상호작용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화를 감상하면서 발생하는 정서는 허구적인 정서이지만, 동시에 감정 이입적인 정서이기도 하다 [2]. 이에 교수는 학생들이 등장인물의 심리를 더 잘 이해하거나 인물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조망을 넓히는 등 영화에 깊게 이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은 영화의 내용이나 등장인물을 통해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현재 소중한 기억은 사람과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영화를 통해 느끼는 정서의 원인을 찾게 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교수는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자기 성찰에 이르도록 안내와 도움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 성찰, 대인관계 고

찰,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급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환경 구축에만 몰두하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교수자의 수업방법이나 형식에 따른 효과에 차이가 없음을 검증했다는 것과 교수자에게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소통, 공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겠다.

향후 온라인 수업을 설계할 때 학생 집단 간 토의에 대한 부분과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을 위한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제안해본다.

References

- [1] The Hankyoreh. 70% of university conduct online lectures on 'full semester' or 'until corona stabilization' [Internet]. The Hankyoreh, [cited 2020 may 8], Available From: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44198.html> (accessed Sep. 18, 2020)
- [2] S. S. Kim, "Comparative Study of the Therapeutic Factors of Selp-Help and Interactive Cinematherapy", *Film Studies*, no. 55, pp. 83-126, 2013.
- [3] YTN. Colleges continue to teach online...Student burst into complaints [Internet]. YTN, [cited 2020 April 2], Available From: https://www.ytn.co.kr/_ln/0103_202004020521037118 (accessed Sep. 11, 2020)
- [4] MBN. [Exclusive] Seoul National University "Full semester online lecture...Grade points are absolute evaluation". [Internet]. MBN, [cited April 1, 2020], Available From: <https://www.mbn.co.kr/news/society/4107037> (accessed Nov. 4, 2020)
- [5] MBN. The first semester of 'In Seoul' online lecture at Ewha... What is the reaction of the 'Cyber college students'?. [Internet]. MBN, [cited April 2, 2020], Available From: Retrieved from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4/344666/> (accessed Nov. 4, 2020)
- [6] Y. H. Lee, Y. J. Park, J. H. Yun, "Exploring the "Types" through Case Analysis on Operation of Distance Education in Universities Responding to COVID-19",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 28, no. 3, pp. 211-234, 2020. DOI: <https://doi.org/10.18230/tjye.2020.28.3.211>
- [7] H. J. Lee, "Learning Process Mechanisms in Resource-Based Structured Instruction and Interpersonal Interactive Instruction in Web-Based Distance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20, no. 4, pp. 25-52, 2004.
- [8] M. G. Moore, "Theory of transactional distance", *Theoretical principles of distance education*, vol. 1, pp. 22-38, 1993.
- [9] D. Morris, N. Mitchell, & M. Bell, "Student use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in an Open University Level 1 course: academic or social?", *Journal of Interactive media in Education*, vol. 99, no. 2, pp. 1-23, 1999.
- [10] O. Peters, "Learning and teaching in distance education: Analyses and interpretations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Education+Training*, pp. 168, 1999.
- [11] S. G. Lee, S. B. Choi, H. W. Kim, "An Exploratory Study of e-Learning Satisfaction: A Mixed Methods of Text Mining and Interview Approaches",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 21, no. 1, pp. 39-59, 2019. DOI: <https://doi.org/10.14329/isr.2019.21.1.039>
- [12] S. C. Lee, J. A. Kim, "Factors that affect student satisfaction with online cours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36, no. 2, pp. 115-138, 2018. DOI: <https://doi.org/10.22553/keas.2018.36.2.115>
- [13] J. B. Arbaugh, R. Duray, "Technologic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student learning and satisfaction with web-based courses: An exploratory study of two on-line MBA programs", *Management Learning*, vol. 33, no. 3, pp. 331-347, 2002. DOI: <https://doi.org/10.1177/1350507602333003>
- [14] Jejusori. What should I teach in the Corona era? "This ear is a great textbook" [Internet]. Jejusori, [cited 2020 September 11], Available From: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19998> (accessed Sep. 18, 2020)
- [15] B. K. Lee, "A Study on Learners' Response to Online College English Class as General Educatio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4, no. 4, 97-112, 2020. DOI: <https://doi.org/10.46392/kige.2020.14.4.97>
- [16] C. R. Rogers, "Client-centered therapy". Cambridge: Houghton Mifflin, 1951. DOI: [https://doi.org/10.1002/1097-4679\(1951077:3<294::AID-JCLP2270070325\)3.0.CO;2-O](https://doi.org/10.1002/1097-4679(1951077:3<294::AID-JCLP2270070325)3.0.CO;2-O)
- [17] S. S. Kim, "A study on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cinematherapy program for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s Thesis,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2005.
- [18] Y. S. Shim, "The theory & practice of cinematherapy", *Hakjisa*, Seoul, pp. 22, 24, 44-45, 54, 2011.
- [19] P. Salovey, J. D. Mayer,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 9, no. 3, pp. 185-211, 1990.
- [20] S. B. Yun, J. K. Lee, J. S. Yu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Job Performance: The Mediating Role of Perspective Taking Deep Acting",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vol. 27, no. 2, pp. 25-48, 2020. DOI: <https://doi.org/10.21052/KCMR.2020.27.2.02>

- [21] D. Pink, "A Whole New Mind", Riverhead Books, New York, pp. 177-184, 2006.
- [22] S. J. Hong, J. C.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ic Ability and Performance on MOT :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Firm` Rel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Korea Service Management Society, vol. 17. no. 3, pp. 45-66, 2016. DOI: <https://doi.org/10.15706/jksms.2016.17.3.003>
- [23] Y. S. Kang, "The Influence of the Verse Activity Program on the First Elementary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7.
- [24] Y. L. Moon, "Professor Mun-Yong Lin's lecture on emotional intelligence", Booksnut, Seoul, pp. 203-221, 2011.
- [25] S. Yang,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young children's bibliotherapy program based on the response-based approach", Unpublished Docto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2013.
- [26] R. Krznaric, "Empathy: A handbook for revolution", Random House, pp. 73-82, 2014.
- [27] A. R. Lim, "Study of Differences in Empathic Ab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College Students' Counseling Course-taking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9, pp. 103-110,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9.103>
- [28] Daniel, M., Cinema therapy, salon, [cited 1999 May 27], Available From: https://www.salon.com/1999/05/27/film_therapy/ (accessed Feb. 24, 2020)
- [29] C. S. Wong, &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3, no. 3, pp. 243-274, 2002. DOI: <http://dx.doi.org/10.4324/9781315250601-10>
- [30] E. J. Kang, "(The)effect of a group cinematherapy program on the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of the at-Risk youth", Unpublished Docto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2013.
- [31] J. H. Park, S. J. Choi, C. H. Hong, "Effects of Cinema Therapy on Emotional Recognition, Emotional Expression, and Empathy for Chronic Schizophrenia Pati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8, no. 3, 479-497, 2013. DOI: <http://dx.doi.org/10.17315/kjhp.2013.18.3.004>
- [32] Y. J. Jeon, S. B. Lee, "The Effects of Employees' Personality Traits on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in the Deluxe Hotel",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vol. 26, no. 3, pp. 395-412, 2011.
- [33] M. H. Davis,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4, no. 1, pp. 113, 1983.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44.1.113>
- [34] S. H.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onents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5, no. 5, pp. 143-166, 1996.
- [35] Y. S. Shim, "2019 KIFA movie list for Cinematherapy and Cinemaworkshop", Shimyoung publish, Seoul, pp. 46-62, 145-151, 157
- [36] M. L. Heston, T. Kottman, "Movies as metaphors: A counseling intervention", The Journal of Humanistic Education and Development, Vol. 36, No. 2, pp. 92-99, 1997. DOI: <http://dx.doi.org/10.1002/j.2164-4683.1997.tb00377.x>
- [37] G. Solomon, "The motion picture prescription: Watch this movie and call me in the morning", Author's Choice Publishing, 1995.
- [38] S. M. Kwon, "Contemporary theories of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Hakjisa, Seoul, pp. 214-218, 2012.
- [39] I. C. Yu, J. A. Bae, "Effects of Cinema Therapy on Decreasing a sense of Uneasiness and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 Focusing on Schizophrenia Pati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8, no. 8, pp. 103-110, 2008.
- [40] M. L. Heston, T. Kottman, "Movies as metaphors: A counseling intervention", The Journal of Humanistic Education and Development, vol. 36, no. 2, pp. 92-99, 1997. DOI: <https://doi.org/10.1002/j.2164-4683.1997.tb00377.x>
- [41] D. S. Forney, "Introduction to Entertainment Media Use", New Directions for Student Services, vol. 108, pp. 1-11, 2004. DOI: <https://doi.org/10.1002/ss.137>

임 애 련(Ae-Ryon Lim)

[정회원]



- 2002년 8월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 2015년 2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이학박사)
- 2013년 ~ 2018년 3월 : 신한대학교 겸임교수

- 2018년 4월 ~ 2019년 2월 : 신한대학교 특임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조교수

<관심분야>

발달심리, 예술심리